

# “국제 CSR 이니셔티브; 역할과 전망”

CSR 국제 워크숍  
2009년 6월 18일 - 19일

주철기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목차

1. 사회변화의 새로운 힘으로서의 CSR
2. 유엔 주도의 CSR 이니셔티브
3. 사회적 감사(監査) 이니셔티브
4. SRI 인덱스
5. 기타 CSR 장려 이니셔티브
6. CSR 이니셔티브의 한계와 전망

##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장려하는 추세는 현대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CSR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면서 세계화된 시장메카니즘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치고,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발전되어왔다.

최근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 시민의 성숙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CSR이 사회 및 경제발전을 만들어 가는 대안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제적 기관, NGO 및 유엔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CSR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에 의해 직접 장려되는 가장 큰 CSR 이니셔티브이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CSR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에 의해 촉발되어, 포괄적 위기관리, 장기적 성과 및 윤리성의 이슈가 빠르게 적절성과 중요성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신감과 신뢰의 회복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가치창출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책임은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될 것이다."<sup>1</sup>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어떤 기업들에게는 CSR 활동에 과감히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CSR 자체가 세계경제의 주요 아젠다라고 주장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사람들의 점진적인 사고방식 변화에 따라, CSR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점차 사회의 주류 원칙으로 보급될 것이며, 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다가올 10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CSR/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주역들은 이 가치를 더 보급시키기 위해 협력해야하며 다양한 CSR 이니셔티브는 보다 좋은 방식으로 조화될 필요가 있다. PRI(책임투자원칙)가 주도하는 사회책임투자(SRI)는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의 참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0년의 ISO 26000의 출범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주년 기념 행사는 국제사회와 비즈니스 업계의 CSR 수락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sup>1</sup> Georg Kell , " Foreword, UN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2008", UNGCO, May 2009

## 1. 사회변화의 새로운 힘으로써의 CSR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종료 이후 비교적 풍요한 발전의 시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은 산업화된 국가에만 국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게 살아야 했다. 1970년대의 냉전 최고절정기에는 개발도상국가들에 의해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충돌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발전은 공평한 정의실현에 대한 요구보다는 강력한 시장의 힘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국가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유엔의 노력도 허무하게 실패했다.

냉전의 경쟁은 자본주의 국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으며 소수의 국가 경우를 제외하고 공산주의는 패배하였다. 1980년대 세계화는 힘차게 진행되어갔으며 국제 커뮤니티는 전례없는 발전을 누렸다. 그러나 세계화의 이러한 밝은 면과 비교하여보면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더욱 벌어지는 빈부격차, 빈곤의 연속, 질병문제, 교육의 부재, 정보화 격차, 경제 및 사회의 지배구조문제등의 부정적 결과 또한 초래하였다.

근본적인 유엔의 원칙과 가치는 종종 시행되지 않거나 무시되어졌다. 이러한 환경아래에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사회적 정의와 실현이 요구되어졌다. 이것이 유엔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유엔의 핵심목표로 출범시킨 이유였다. 그러나 이 목표가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유엔은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 큰 개혁을 하도록 요구된 가운데, 2000년에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출범시켰다.

과거, 유엔은 국제평화와 발전의 증진이라는 유엔헌장의 이행을위해서 주로 정부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은 국내외 경제 및 사회적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NGO의 역할이 성장했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유엔은 민간영역과의 협력관계를 넓혀야만 한다.

아시아경제위기이후의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새로운 구호는 보다 포용적인 세계경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권, 환경 및 노동권과 같은 유엔의 기본가치를 소중히 하기위해서 민간부문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은 CSR을 유엔의 기본적 가치를 이행시킬 수단으로서 지

지해야 할 가치로서 채택하고 있다. 브레튼우즈 시스템과 나란히 WTO와 유엔 기구들, 민간 부문들은 유엔의 가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생겨났어야만 했던 이유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는 소수의 투자은행들과 개인들의 분별없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로 야기된 것이다.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는 배려깊은 CSR 존중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래 CSR 운동은 유럽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운동의 전통이 남아있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종교펀드들은 윤리침해가 없는 기업들로의 투자를 선호하였다. 심지어 영국정부는 2000년 사회책임 연기금펀드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유럽의 사회운동의 강력한 전통이 CSR을 유럽전역에 점진적으로 보급하게 도왔다.

미국에서의 CSR은 20세기 초의 음주반대 및 마약반대 캠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권에 대한 항쟁과 압력의 수단으로서 개발되어졌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기업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항한 광범위한 캠페인이 조직되었다. 교회펀드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최근, 특히 1992년 Rio 회의 이후에는 환경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환경촉진주의자들의 압력은 환경적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80년대 이후의 수십년간 보다 많은 CSR 추진자들과 NGO들이 등장하고 있다. CSR이 사회적 규율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있다. 새로운 타입의 CSR이 제안되어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회적 펀드가 생겨나고 있고 대형 연기금 펀드는 보다 건전하고 윤리적인 기업들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자각, 떠오르는 시민사회와 성장하는 대중의 등장은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오로지 재무적 결과로만 평가받던 기업들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측면은 반부패이다. 일반대중의 자각과 민주주의에 익숙한 중산층의 성장이 있기전까지는 부패는 피할수 없는 고질병으로 받아들

여졌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부패한 정부관료와 민간인들의 부패행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다. 사람들은 정치지도자, 정부관료, 경제 및 사회분야 지도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부패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중춧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해서 보다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될 수록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있으며, 이로서 이전보다 CSR의 가치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모든 동향은 정부가 보다 CSR 친화적인 정책들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시대적 변화로 야기된 유엔의 메커니즘과 기능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 새로운 10년에 들어가는 유엔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세계금융 위기 이후인 지금, 유엔의 기본적 가치에 기반한 CSR과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요구가 보다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CSR은 미래 국제사회에 주요 아젠다로 널리 보급될 것이다.

## 2. 유엔 주도의 CSR 이니셔티브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다른 유엔 기구에 의해 CSR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종종 연계되며, 공통의 목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CSR 에이전트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종종 기업의 책임(SR), 기업시민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많은 국제 CSR 이니셔티브들 가운데 다음 이니셔티브는 유엔이나 유엔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이니셔티브들이다.

### A. 유엔글로벌콤팩트

2000년에 출범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4개의 행동영역으로 추진된다: 즉 인권, 노동권, 환경 및 반부패이다. 초기의 유엔글로벌콤팩트에는 반부패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지만 2003년에 유엔이 유엔 반부패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 추가되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다음 10가지의 원칙을 따른다.

## 인권<sup>2</sup>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기준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000년 7월 출범이후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130국가가 넘는 전세계에 걸쳐서 5,000개의 기업과 1,500개의 시민사회와 비사업기관을 포함하여 6,500개 이상의 회원이 있다.<sup>3</sup> 이는 CSR을 위한 최대의 단일한 자발적 기구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OHCHR, UNDP, UNOUDI, UNEP, ILO, UNIDO의 6개 주요 유엔기관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80개 국가 이상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역네트워크가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 CEO들은 3년마다 만나 미래 행동의 방향을

<sup>2</sup> www.unglobalcompact.org

<sup>3</sup> UN Global Compact, "Annual review 2008", ibid

계획하고, 매년 세계의 네트워크 회의가 열린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는 지역차원에서 CSR 촉진을 토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는 그들의 CSR 추진경험을 비교하고 우수사례를 찾는다. 워크숍, 훈련세션이 조직되고, 인권, 노동 및 반부패에 대한 실무그룹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의 가치와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CEO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를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천명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서약을 바탕으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글로벌콤팩트 지역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권장 된다. 일단 가입되면, 회원사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기업 내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합류한 2년 후부터 매년 COP (Communication of Progress)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COP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지속가능보고서에서처럼,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를 수행할 의사를 표현하는 분명한 CEO의 성명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연간성과의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해야 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은 GRI G3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적 표준을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권고받는다. 제3자 인증은 좋은 조치이다.

COP의 결과는 다양한 주주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UNGCO)에도 등록되어, 본부는 보고서의 주요 골격을 검토할 것이다. 보고서는 CEO와 최고경영진들에게 피드백되어 내년도 성과향상의 척도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이다. 인센티브로서, 좋은 보고서는 '우수 COP' 로 표창된다. 기존 지속가능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COP와 병합하여 작성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COP가 10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쓰여질 수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회원들에게 -예를 들면 인권과 노동분야에서-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소의 비판이 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비판과 감시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엔의 민간부문과의 호의적인 연합이



NGO의 위상을 약화시킴으로써, 유엔의 활동구조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을 염려한다.<sup>4</sup>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강제적 의무가 없고,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임은 사실이지만, 변화를 위한 진정한 공약이며, COP를 작성함으로써 회원사는 그들의 기업 경영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영감을 주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2가지의 윤리강령이 있다. 영감적인 강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보유하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이상을 제시하며, 이것은 아무런 강제적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방향을 제시하는 강령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규약을 제공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분명한 이상과 제한된 강제의 중간에 위치한다."<sup>5</sup>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어떻게 COP를 향상시킬 것인지, 어떻게 회원들이 COP를 충실하게 적용하도록 권장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과 토의가 진행될 것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활동들은 국제 및 지역적 NGO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책임투자원칙,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책임경영 교육원칙과 수자원관리 책무와 같은 다양한 행동프로그램을 이해관계자들과 협동하여 출범시켰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자신의 업무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는 신규회원은 가입승인후의 2년 후가 아닌 1년 후부터 COP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권리정지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회원리스트에서 제명될 것이다.

한국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서명한 154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네트워크는 회원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다양한 행동들을 조직하고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적 토론을 위한 플랫폼의 제공자로 활동하고자 한다. 현재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회원사 CEO의 실질 행동 참여를 깊이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업, 지방자치단체들과 좀 더 많은 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가

---

<sup>4</sup> Hyeon D.Yeo, Young H.Ko , and S.P Park,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Perspective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from Business Community: Review of CSR philosophy on the UN Global Compact related Activities" , World Civic Forum ,May 2009

<sup>5</sup> Oliver F. Williams, University of Notre dame, "Recasting the Bottom Line : Educating for Capitalism in the 21<sup>st</sup> Century" ,UN PRME Special Session of World Civic Forum , May 2009

하는 것이다.

## **B. 책임투자원칙(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

사회책임투자분야에서 PRI는 반기문사무총장의 참석하에 2007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비즈니스리더 정상회의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PRI는 다음 6개의 원칙을 따른다.

###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sup>6</sup>**

가능한 행동들:

- 투자정책에 ESG 이슈를 명시한다.
- ESG 이슈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의 ESG 관련 역량을 평가한다.
-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브로커, 연구소, 평가회사 등의 투자분석에 있어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연구소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 투자전문가들에게 ESG 교육을 장려한다.

###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가능한 행동들:

- 책임투자원칙과 일관된 운용정책을 공표한다.
-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행사에 대한 방침을 극복한다.
- 투자대상과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경영관여(Engagement) 전략을 개발한다.
- 주주권리의 증진, 보호 등과 관련된 방침, 규제, 기타 표준 개발에 참여한다.
- 장기투자 관점에서 ESG 이슈 고려사항의 준수에 대한 주주 결의문을 작성한다.
- 타 기관과의 협력적인 경영관여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

<sup>6</sup> www.unpri.org

- 자산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이 ESG 관련 경영관여 사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가능한 행동들:

- ESG 이슈들에 대하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한 표준화된 보고를 요구한다.
- 기업 연례보고서에 ESG 이슈들이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요구한다.
- 기업들에게 ESG 관련기준의 적용, 준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 (UN Global Compact 준수 상황 등)
- ESG 관련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주주들의 활동이나 결의는 지원한다.

### 4 우리는 금융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가능한 행동들:

- 용역제안요청서(RFP)에 책임투자원칙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다.
- 투자결정, 감독절차, 실적지표, 인센티브 구조를 적절히 일치시킨다.
- 투자자문사 등과 잠재적 ESG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 ESG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문사 등과 재조사한다.
- ESG 통합 벤치마킹 기법을 개발한다.
- 책임투자원칙 이행을 위한 규제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 5 우리는 책임투자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가능한 행동들:

- 기법, 자료, 투자 보고서, 각종 지식의 공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지원 및 협력한다.
-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총괄적으로 다룬다.
- 협력적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지지한다.

## 6 우리는 책임투자원칙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가능한 행동들:

- ESG 이슈가 투자 의사 결정 시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공개한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행동을 공개한다. (의결권 행사, 기업 경영관여, 정책토론 등)
- 책임투자원칙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사로부터 요구되는 사안을 공개한다.
- ESG 이슈와 책임투자원칙에 대해 기금 수탁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 "Comply or Explain" 접근을 통해 PRI와 관련된 이행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원칙을 준수하거나 혹은 준수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함)
- 책임투자원칙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보고서를 활용한다.

책임투자원칙은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국제단체들이 투자사례에 환경,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늘어가는 연관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동 원칙에 서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 수탁자 책임과 일치되는 원칙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또한 시간에 걸쳐서 동원칙의 내용의 효과를 측정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해야한다.

책임투자원칙의 서명자들은 연기금과 같은 자산소유자, 자산관리사 및 전문서비스 기관들이다. 470여개의 서명기관이 있으며 이들은 명성이 있는 연기금을 포함하여 18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8개기관(5개의 자산운용사와 3개의 전문서비스 기관)이 서명했다.

2008년 6월에 PRI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UNEP FI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컨퍼런스 「상황의 변화 :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경제」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아시아와 그이상을 넘어서 ESG 가치를 촉진하자는 서울선언문을 도입하였다. 책임투자원칙기구

(PRI)는 책임투자의 핵심으로서 미래가 밝다. 그러나 PRI는 사회적 의무감에 기속되지 않고, 책임투자에 보다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투자보다는 책임투자에 보다 목표를 두었다.<sup>7</sup> 그러나 "사회"를 책임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책임투자원칙은 기업 투자의 사회적 측면, 다시 말해서 ESG 가치의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C. 유엔환경계획/금융 이니셔티브(UNEP Financial Initiatives, UNEP/FI)<sup>8</sup>

유엔환경계획은 금융기관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를 세웠다.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현재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연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17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 회원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기관들에게 국제컨퍼런스나 행사뿐만 아니라 사례연구, 역량 구축, 행동지향의 출판물 등을 제공한다. 한국에는 10개의 기업이 서명하였으며 그들은 UNEP FI 한국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한대로 2008년 6월에 서울에서 책임투자원칙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합동 컨퍼런스를 열었다.

### D. 기후보호 이니셔티브(Caring for Climate Initiatives, C4C)<sup>9</sup>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가자들을 위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증진시키고 공공정책과 행동을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행동 플랫폼이다. 기후변화의 난제와 맞서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환경계획,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에 의해 소집된 비즈니스와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Caring for Climate , The Business Leaders Platform"으로 명명된 선언문을 준비했다.

<sup>7</sup> Presentation by Mr. Glen Saunders, PRI Board member from New Zealand at Seoul Conference on SRI held in June 2009.

<sup>8</sup> [www.unepfi.org](http://www.unepfi.org)

<sup>9</sup> [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limate\\_Change](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limate_Change)

이것은 비즈니스에 의한 행동선언서이며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적 이해를 초월하여 기업과 정부에 비즈니스 해결방안을 위한 접촉의 장을 제공한다. 현재의 기후보호선언은 356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참가자들이 서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비즈니스 행동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 **E. 기업 CEO 수자원관리 책무(The CEO Water Mandate)<sup>10</sup>**

이것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스웨덴정부, 사명감을 가진 기업그룹, 물부족과 위생을 관리하는 전문기구들간의 높은 협력 파트너십에서 출범하였다. 2007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 제네바 정상리더회담에서 출범하였으며 이것은 떠오르는 국제물문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전략과 해법개발에 중점을 둔 민간 이니셔티브로 기획되었다. CEO들은 기업문화와 의사결정시에 전체적인 물사용의 측정과 물의 지속가능성의 인식 촉진을 실행하겠다고 서약한다. 그들은 또한 협력업체들에게까지 물보존 향상을 독려하고 물위기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하다. CEO는 집단적 행동을 위해서 시민사회조직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맺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 규칙을 수립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 **F. 책임경영 교육원칙(PRME)<sup>11</sup> (Principles of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기업의 행동에서 의미있고 영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CEO를 양성하는 비즈니스 교육 학계, 특히 경영대학원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 학장 및 연합들을 포함한 경영교육자들은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후원아래, 책임경영 교육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세계의 230 여개의 비즈니스 스쿨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책임경영 교육원칙을 유지하는 6개의 원칙이 있다. 책임경영교육원칙(PRME)은 작년 12월 뉴욕에서 첫번째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은 이미 4개의 비즈니스 스쿨이 합류하였다. 내년에는 아시아 책임경영 교육원칙 서명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CSR의 커리큘

<sup>10</sup> [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EO\\_Water\\_Mandate](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Environment/CEO_Water_Mandate)

<sup>11</sup> [www.unprme.org](http://www.unprme.org)

림을 갖추고 있는 MBA과정은 좋은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숙된 감각을 가진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 3. 사회감사 이니셔티브

“재무감사가 금전흐름, 세금목적을 위한 가치의 재무평가와 관리직의 책임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 감사는 그들의 내부 및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비재무적 측면을 다룬다. 재무감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공개기업에 필수인 반면에 사회감사는 현재 자발적인 과정이다.”<sup>12</sup>

사회감사의 표준가운데 GRI, ISO 표준, AA 1000가 가장 잘 알려져있다.

#### 1)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sup>13</sup>

GRI는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에 의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1997년에 만들어졌다. GRI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었고 수년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이 프레임워크의 초석은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이다. 현재는 GRI G3로 불리우는 3번째 버전이 2006년 공개이후 널리 쓰여지고 있다. 세계의 1,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 보고의 메카니즘은 기술적 품질, 신뢰성과 관련성의 최고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감대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뢰할 만한 표준으로서 GRI를 참조하고 있다.

#### 2) ISO14000, ISO 26000<sup>14</sup>

국제 표준화기구(ISO)는 특정한 환경이슈를 다루는 표준을 개발하였고, ISO 14000 가족은 비즈니스활동으로 인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sup>12</sup> Thornel/Ferrell/Ferrell, Business and Society, “ A strategic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 page 405-406,Houghton Mifflin Company, 2008

<sup>13</sup> [www.globalreporting.org/AboutGRI](http://www.globalreporting.org/AboutGRI)

<sup>14</sup> [www.iso.org](http://www.iso.org)

최소화하고 기업의 환경성과를 끊임없이 향상을 이루었는지의 입장에서 다양한 환경관리측면을 제출한다. 현재 국제 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ISO26000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에 지침을 주는 미래의 국제표준자격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다. ISO 26000은 지침서이며, ISO 9001: 2000 and ISO 1400:2004와 같은 인증서 표준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이것은 강제사항이나 자격요건이 아니며 미래의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비즈니스나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방향을 위한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지침을 개발하면서 국제 표준화기구는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글로벌콤팩트 사무국 및 OECD 와 이들의 기존 표준과의 일치를 확증하기 위하여 공동작업을 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 공표가 되면,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상품이나 비즈니스 활동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초로 쓰여질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좋은 의도가 좋은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돕는데 강력한 사회적 책임도구가 될 것이다.

### 3) AA1000<sup>15</sup>

Accountabilty는 글로벌하고, 비영리이며 스스로 운영되는 파트너십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 정부 및 시민 사회 기구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수립하고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경쟁력 및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을 발전 가능하게 하여 비즈니스, 공공 및 시민 기관의 세계적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한다.

표준의 A 1000 시리즈는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있고 신뢰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AA 1000 시리즈는 AA 1000 Accountability Principle Standard과 the AA 1000 Assurances Standard로 구성 되어있다.

### 4)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sup>16</sup>

<sup>15</sup> [www.corporateregister.com](http://www.corporateregister.com)

<sup>16</sup> [www.equator-principles.com](http://www.equator-principles.com)



이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사회 및 환경적인 리스크를 결정하고,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표준이다. 이것은 신흥시장에서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회 및 환경 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 금융업자들을 돕기위해서 출범되었다. World Bank/IFC는 이것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EPFI)은 자금이 조달된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 및 환경관리 사례를 반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원칙들을 적용했다. 이 원칙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각 EP 금융기관들이 자체의 내부 및 환경 정책, 절차와 표준에 의해 실행되는 공통적 기준선과 틀로 사용될 의도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82개의 은행이 적도원칙에 합류하였으며 한국에는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은행이 없다.

#### 5)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CDP)<sup>17</su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투자자, 기업 및 정부가 위태로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2000년에 만들어진 투자자 이니셔티브이다. 참가기업들은 탄소배출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나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한편, 올바른 투자결정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DP는 55조달러를 관리하는 475명의 서명투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첫번째 정보 요청은 2003년 500 대기업에게 이루어졌다. 2009년에 CDP는 세계 3,700대기업에 요청하였다. 한국에서는 2008년 CDP 한국위원회의 발족으로 50개 주요기업을 목표로 첫번째 조사가 수행되었다. 2009년 한국의 100대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CDP 한국보고서는 2009년 9월에 발간될 예정이다<sup>18</sup>.

#### 4. 사회책임투자 지수(SRI Indexes)

지속가능한 관리성과와 CSR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이 주요시장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과 사회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증

<sup>17</sup> [www.cdproject.net](http://www.cdproject.net)

<sup>18</sup> Kate Levick, Head of Government Relations , CDP at the Seoul CDP 2009 Breakfast Meeting of May 18, 2009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덱스들을 이용한다.

### **A.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sup>19</sup>**

1999년 9월 출범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는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노력하는 선도기업들의 재무 성과를 추적한다. DJSI World는 경제, 환경과 사회적 기준측면에서 Dow Jones Global Total stock Market Index의 2,500대 기업들을 망라한다. DJSI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실천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지속가능성의 프리즘을 통해서 기회와 위기를 평가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의 절대적 공약과 함께 선도되고 있으며, 이로써 기업들의 경쟁적 우위를 향상시킨다.<sup>20</sup>

다우는 지속가능성이 주류에 편승할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실천 선도기업들은 뒤쳐지는 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주주 가치를 확실하게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자산은 성장할 것이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DJ global total Stock market Index 내의 선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600개의 기업을 선별한 기업들의 상위 20%를 추려낸 것이다. 다우에게는 아시아는 여전히 미성숙한 시장이다. 최근에 한국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하여 DJSI 한국지수를 출범하려는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었다.

### **B. FTSE index<sup>21</sup>**

2001년 출범한 FTSE4Good 인덱스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기업의 책임기준에 부합한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들 기업으로의 투자를 독려한다. 이 인덱스 시리즈는 FTSE Global Equity 인덱스 시리즈 - FTSE All-World Index, FTSE4Good Environmental Leaders Europe 40 Index, FTSE4Good IBEX Index, FTSE ET50 Index 등-로부터 유래되었다. FTSE 그룹은 세계 여러 곳에 사무실이 있으며 솔루션 전달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 **C. Domini Index<sup>22</sup>**

---

<sup>19</sup> [www.sustainability-index.com](http://www.sustainability-index.com)

<sup>20</sup> John A. Prestbo, Editor & executive director DJI, at Korea Productive Center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on Economic Crisis : held in Seoul 28 April 2009

<sup>21</sup> [www.ftse.com](http://www.ftse.com)

Domini 400 Social Index (DS400)는 float-adjusted, 시가총액에 가중치를 둔 미국의 보통주 인덱스이다. 1990년 KLD Research & Analytics, INC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이는 투자포트폴리오에 환경, 사회환경 선별을 사용한 첫 벤치마크 인덱스이다. Domini는 ESG 이슈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정한 배제산업에 관여된 기업들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제적 이슈는 Darfur 사건, 기후변화, 인권침해, 주류, 도박, 담배, 권총 및 기타 무기산업이나 핵발전소 산업이다. Domini는 어떤 기업을 제외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인덱스에 항상 400개의 기업을 유지한다. KLD는 S&P500의 재편성과 일치하여 인덱스의 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Domini 인덱스의 전반적인 성과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측정된다.<sup>23</sup>

## 5. The Other Actors related

### A. OECD<sup>24</sup>

OECD는 선진국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세계경제의 발전과 함께 정부와 기업들에게 지배구조의 최고의 표준을 촉진해 왔다.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공정경쟁의 규칙을 존중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며 환경 규칙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원칙을 존중해야 한다.<sup>25</sup>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000년에 수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공개, 노동조건, 환경책임, 반부패, 소비자이익 보호, 경쟁과 세금에 대한 다양한 원칙을 다룬다. OECD 국가들은 회원국들간의 행동을 상호 체크할수 있는 동료집단간의 압력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비 강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과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OECD는 또한 1999년에 채택된 OECD 기업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통해서, 회원국들에게 기업의 좋은 지배구조를 존중할 것을 권한다. 반부패 분야에서

---

<sup>22</sup> [www.kld.com/indexes/ds400index](http://www.kld.com/indexes/ds400index)

<sup>23</sup> Presentation by Madame Domini at the Conference on Human rights and CSR , in 2008 in Seoul

<sup>24</sup> [www.oecd.org](http://www.oecd.org)

<sup>25</sup> In 1996,when Korea joined the OECD, it was subject to harsh scrutiny by OECD members on all these criteria.

OECD는 외국인관료를 대상으로한 뇌물 수수에 관한 반부패 협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청렴한 행동에 관한 도구중 하나이다.

## B.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은 현대 자본주의 엘리트의 연간 모임이다. 이 포럼은 오랫동안 반세계화의 주역들로부터 부자들의 모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시민의식의 장려 필요성을 종종 강조한다.<sup>26</sup>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본회의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한 이벤트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고, 반부패의 틀로서 PACI (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를 개발하였다.

아마도 다보스 포럼이 보다 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화로 변화되도록 혹은 최소한 기업시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CSR 이니셔티브의 한계와 전망

많은 이니셔티브가 개발되면서 CSR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다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책임있는 기업문화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대학과 비즈니스 스쿨 수준에서의 책임경영교육은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에 걸쳐 회원수가 6,500여개 기업 및 단체로까지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세계의 거대 주요기업수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기업들이 더욱 CSR 가치 이행에 매진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및 비재무적인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라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와 시민사회의 리더들은 그들간의 분쟁에는 지나치게 중점을 두면서, 양자간 공유되는 요소에는 작은 관심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공유된 가치

---

<sup>26</sup> Professor Schwab's article contribution to Foreign Affairs in Spring edition 2008

를 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이 만약 핵심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다면, 그들은 CSR이 비용요소나, 제약요소 혹은 자선행위 훨씬 이상의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기회, 혁신 그리고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sup>27</sup>

보편적 원칙을 만족하는 목표로서 CSR을 채택한 유엔은 CSR 이니셔티브를 당연히 촉진해야 한다. 아마도 CSR의 선구자들은 기후변화 이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 다른 CSR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다 숙고하고,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공통의 기반을 찾아야 한다. 내년의 글로벌콤팩트 기업 정상회의는 CSR 지도자들의 견해를 교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한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공동 행동이 필요하며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업문화와 사회에 의해 보다 많이 수용되어, 한국의 중점과제가 되도록 사회적 도전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초기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성과는 중요하며, 우리의 기업회원사들의 보다 긍정적인 성과가 또한 중요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고 신뢰받는 회원으로 먼저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고, 오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되기 원한다면, 좋은 기업문화, 즉 신뢰받고 책임있는 기업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오래 이룩기를 바라온 "브랜드 코리아"는 이러한 신뢰감과 책임감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CSR이 주류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NGO, CSO, 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등 선구자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일본, 한국 모두가 유엔이 지지하는 이 목표에 동참함으로써 CSR/UNGC의 가치가 동북아 경제를 통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할수록 보다 많은 협력과 파트너십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 간에 인식되어질 것이다. 지역내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10 원칙에 근거한 공통적인 비즈니스 윤리를 공유한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이것은

<sup>27</sup>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2006

<sup>28</sup> 江橋 崇,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of Business" Hosei University Boissonade Institute of Modern Law and Politics, March 2009

상당히 아득한 기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CSR은 우리 지역에서 이내 뿌리내리고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아젠다 설정에 아시아의 경험을 반영하기위해 서로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내의 CSR/UNGC 촉진자들간에 보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